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18년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6월 26일 (화)

참 석

최순영 위원장	박성희 대표이사
전애리 위원	신하연 편성제작국장
최진봉 위원	이윤택 보도국부국장
김국래 위원	이선희 시청자심의팀장
김민찬 위원	김윤경 시청자심의팀
허 경 위원	
염성원 위원	

시청자심의팀

- 개 회 -

최순영 위원장:

먼저, 박성희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대표이사:

5월 말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바뀐 듯합니다. 장마도 게릴라성 장마가 시작부터 요란하네요. 경기, 인천 지역을 맡고 있는 OBS로서는 지방선거로 많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듯하구요. 특히 보도 프로그램 안에서 구상 중입니다. 또, 접촉면을 많이 넓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의견 많이 주시고, 새 지방정부가 들어섰는데 저희 OBS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덧붙여 코멘트 해주시면 새겨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빈약하지만 많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5월 시청자위원회 제안사항의 처리결과를 이윤택 보도국 부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윤택 보도국 부국장:

먼저 보도부문 말씀 드립니다. 김국래 위원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이 무산된 일을 전하는 중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무산되었는데 우리가 보도할 때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여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책팀에 잘 전달해 향후 뉴스보도 시 시청자들에게도 정확하고 도움 되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유념하기로 했습니다.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중국어선으로 피해 받는 주민 보상 문제, 팔당댐 주변 지역 관련 문제도 무게를 둬 더 보도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경기/인천 담당 기자들에게 지시해 향후에도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5도는 내륙과는 확연하게 온도/기후 차이가 나는데, 일기예보에서 특화해 배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개국 이후 고민해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계속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서해5도 관심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말씀 새기고, 유념하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침뉴스 <OBS 뉴스 745> 5/28 방송에 지역 관련 뉴스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아쉬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침 시간대에 상당히 사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사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지적해주셨습니다. 더 신경 쓰고 아침 뉴스에서도 시청자들에게 경인지역 뉴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성제작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신하연 편성제작국장:

이민우 위원님과 김민찬 위원님께서 <강소기업 프로젝트 성공의 법칙>에 대해 아쉬운 점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으로 세 편 방송하고 지금 일단 내렸습니다. 경인 지역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도했는데, 지적하신 것들처럼 홍보느낌이 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주제작으로 들어왔던 프로그램인데, 담당피디가 누차 지적하고 수정하며 보완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던 것 같구요. 그런 이유로 일단 이번 세 편으로 테스트해보고 내린 뒤 다시 보완해서 퀄리티와 완성도 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끔 런칭하려고 하고 있고, 차후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인 봄> 관련 허경 위원님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모두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 뉴미디어팀에서 SNS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 팀에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포털 등의 협력 문제는 저희가 계속하고 싶던 부분이라 제작뿐만 아니라 미디어전략국, 뉴미디어팀과 연계해 프로그램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 봄> 프로그램 제목에서 특별한 느낌이 안 온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차제에 지역 관련 정보나 소식을 담은 프로그램 띠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시간 정도 매일매일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로컬존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렇게 바꾸면서 타이틀도 고쳐서 '지역과 함께하는 OBS'를 홍보하고 개편할 예정입니다. 9월쯤 예상하고 있으나, 계획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불허전>은 김석훈 씨로 새 진행을 시작했는데, 처음 출연자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오다 보니 젊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 쉽지가 않아 더욱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한 듯합니다. 진행자로서 초대 손님을 모시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을 이동후 위원님이나 김국래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초대손님의 연령을 조금 더 맞는 수준으로 맞추니 진행자가 조금은 더 편해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띄는 변화가 있었구요. 아마 이번 주 방송부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녹화가 자리를 잡았구요. 저희가 명사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시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명사를 모셔서 그분의 개인사까지 묻는 구성을 잡고 있는데, 이전 명불허전이 필요와 상관없이 한 분야에서 두각 나타낸 분만 모시다 보니 '저 분이 왜 나왔지' 뜬금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몇 주년이나 몇 회 등 계기가 되면 시기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그리고 <OBS 시네마>는 요즘 지상파에서 영화를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데요. 시청률과 같은 것을 생각하다보면 가끔 자극적인 것을 방송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 재방송 될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행복부동산 연구소>. 전문가들이 전문가이긴 한데 방송 전문가가 아니어서 방송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속 제작진이 신경을 쓰고 진행자들에게 요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월 방송내용 및 7월 방송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먼저 염성원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의견 주시겠습니다.

염성원 위원:

지난달에도 이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요. 6/8 <행복부동산연구소>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부동산, 보험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주할 때에는 믿을 만한 구석을 찾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OBS의 이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일별로 전문가가 등장해 주제별로 부동산 정보를 집중분석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내 코너가 있습니다. 부동산 날씨, 부동산 가이드 톡, 5300 상담소, 알찬 매물 x-ray로 나누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가보았는데 관련 방송 정보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자막이 아쉬웠습니다. 부동산 정보가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버려서 자막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특히 부동산 날씨 코너의 경우 최근 부동산 동향인데, 주로 말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자막 도움이 필요한 코너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공교롭게 제가 본 회차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770회에서는 부동산 정보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코너는 용산구, 서대문구, 양천구 부동산이었구요. 매물은 강남구, 금천구였습니다. 경기 지역쪽 여러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기능을 담당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다 보면 세미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부족한 정보는 세미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듯한데, 세미나 장소가 인천 경기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로 가야하는 거죠. 인천과 경기도 쪽에 생활기반이 되신 분들은 서울로 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출연 전문가를 전문가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출연자들 한 명 한명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전문가'가 말씀하신다고 하니 어느 전문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방송 중에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획일적으로 한 분이 나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부동산 정보와 같은 것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 하는 것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듯합니다.

또한. 인천 경기 지역에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을 <행복부동산연구소>에서 탐색하고 찾아내서 소개해주면 경인지역 부동산 가치를 조금 더 제고하는 데에 도움주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순서는 첨부된 의견서에 정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민찬 위원:

6/15 <미디어공감 좋은TV> 259회를 보고 의견 작성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부분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부분이라, 읽어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적어두기는 했는데, 제 건의사항은 마지막 단락 의견 부분입니다.

사전 주제 선정에 있어 법률 요건을 통해 걸러내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제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보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선거가 끝난 지금에서야 의견으로 드리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한데요. 다음번에라도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을 할 경우 어차피 될 수 없는 부분은 걸러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라고 제가 발췌해두었는데, 결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특히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 중에는 크게 수혜적, 시혜적인 측면과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는 측면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혜적인 것은 예산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고 크게 문제없으나, 권리를 제안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침익적, 침해적인 규정.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엔 결국은 아무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당선되고 나서 추진하더라도 어차피 안 됩니다. 법원에 의해 제재 받게 되고, 위법하다고 판명나기 때문에 애초 이런 부분부터 방송에서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 시혜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침익적인 내용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려 정책을 풀어내기 전에 걸러내자'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 점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경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허경 위원: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인ZOOM>인 93회를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를 어떤 분야,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지역문화 관련한 정책의 지원기관장을 모신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과 판단하에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역시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경기인천지역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여기서 전혀 다룬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이 초청된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초청한 것은 좋은데, 여기서 경인지역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에도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듯합니다.

저희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미디어와 관련한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과의 연계방안을 전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OBS와도 관련되어 있는 영역인거죠. 전체 방송과 정책연합?과의 연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93회 출연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으로 보면, 경기·인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관련한 현황/정책/과제 등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진흥원장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OBS의 정책적 시안에 대해 놀랄 수 있었고. 예를 들면 부천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이 전국에서도 매우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서 지역협력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만들었는데 인천 문화재단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사

례도 같이 다루며 이야기하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섭외하시는 분들을 정할 때 민선7기 경기도·인천광역시의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이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그 분야 관련된 전문가나 정책부처 출신이나 공공기관장을 모셔서 평가도 해보고, 연계방안도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인천 지역 관련 정책 중 OBS와 관련된 미디어 관련, 방송 관련정책이 있는지도 이야기 하면서 OBS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했구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한 것도 이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시청자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말하는 것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최소 <경인Zoom인>에서는 각 분야 자문가가 있다면, 회의를 해서 주요의제를 뽑아보고 관련해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하반기 기획이나 편성 관련 계획을 세우면 지역방송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OBS의 운영과도 분명 연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진봉 위원:

저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미디어 공감 좋은 TV>을 보았습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인데도 시간을 길게 하더라구요. 한 시간 편성에 코너도 여러 가지고.

첫 번째 코너 방송가 소식에서는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에서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가 조사대상 37개국 중 꼴등이라는 내용을 전달해줬습니다. 최하위. 믿지를 않는 거죠. 국민들이 뉴스의 신뢰도를 가장 낮게 본다는 발표인데,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볼 수 있는 부분 이야기해주셔서 언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는 전체 방송 중 5~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짧아요. 방송가 소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널리즘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우리나라 뉴스에 대한 분석 등 아이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하고 끝났거든요.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TV 있수다 코너인데, YMCA 모니터회원 두 분이 나와서 수다를 하는 듯한 포맷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앉아있는 모습이 옆으로 앉아있는데, 화면이 꽉 차요. 축구 경기 해설자와 캐스터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나운서 중심으로 양쪽에 패널이 앉아 있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 두 분만 그런 모습으로 자리해요. 차라리 수다를 떠는 듯한 형식으로 하려면 페이퍼를 하나 두고 양쪽에 앉아서 마주보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은 카메라를 안보고 옆사람을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니터하는 것을 다루는 방식이더라도 좌석배치가 너무 어색하니 마주보고 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지 않고 서로 쳐다보니 옆면이 나와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코너와 상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TV수행평가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평가원 한 분과 경향신문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평가원은 대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대체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말이 너무 길어요. 방송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듯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지루해집니다. 방송은 짧게 끊어서 가야하는데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스타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말을 하고, 아나운서가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중 <민생돋보기>에 나온 패널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패널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너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종편에서조차 출연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상파인데 OBS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고 자극적인 말을 해요. 패널 섭외와 구성을 PD가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작가에 의존하지 말고 PD가 신경 써야 하는 것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애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

여기 와서 들어보면 미디어 관련 전문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아무래도 저는 시민대표인 듯하네요. <OBS 뉴스 745>를 연달아 세 번 봤는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구요. 인터뷰이는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전화인터뷰가 몇 분정도 진행되죠?

이윤택 보도국 부국장:

8-10분 정도 진행됩니다.

전애리 위원: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애를 써서 집중해야지만 알 수 있겠더라구요. 한 사람이 너무 한 톤(tone)으로 길게 이야기 하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며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건 뉴스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을 너무 길게 구성합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해야 하니 이해는 하나, 단신으로 하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길게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화로 10분하더니, 그 뒤에는 러시아 축구 외교에 대해 말하더라구요. 또, 나중에는 동영상이 없는지 사진만 나왔구요. 이건 마치 '대한늬우스'를 보던 느낌이었고, 참 지루하게 끌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은 <OBS 뉴스 745>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경기, 인천만 보여줘요. 기왕이면 전국 것을 해주면 좀 더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메인 아나운서분의 톤이 굉장히 알토 톤이세요. 여자 치고는 톤이 낮더라구요. 그런데 리포터들은 더 낮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틀어보며 봤는데요. 저는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sol)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가장 머리에 박히는 톤이 솔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톤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분 목소리도

중후했는데 리포터들도 그러니 가라앉더라구요. 오후 밤에 하는 뉴스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서 깊은 뜻이 있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잠 깨우지 않으려고 고요하게 하시는지. 저녁엔 톤 높여 하시더라구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톤이 가라앉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채널을 돌려버려요.

또, 뉴스 말고 날씨를 말씀해주시는 기상캐스터 분이 제가 본 세 번 다 한결같이 손을 모으고 손가락을 조물조물. 쓸 데 없는 동작을 하시더라구요. 보여줘야 할 때에만 해야 하는데 떨리는지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니 보는 사람의 시선이 기상으로 가지 않고 그분 손으로 가요. 여러분, 음악회 가서 합창 때 다른 행동 하는 사람 집중해서 보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 동작이 왔다갔다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화면이 흔들흔들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볼 것 같아요.

아침 뉴스에는 일반인과 길게 전화인터뷰 하느라 지루해죽겠는데, 리포터는 더 지루하게 낮은 톤으로 전하고…. 톤은 훈련을 금방 할 수 있어요. 말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리포터 분들이 조금만 톤을 올려 상쾌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일요일 사건사고가 안 나나요? 일요일 기자분들이 쉬시나요? 어디와 제휴라도 해서 받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아래에 자막뉴스를 보는데요. 그 자막뉴스를 어쩌다 놓치잖아요?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자막뉴스를 하나 놓치면 다시 보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OBS는 금방 돌아오더라구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뉴스인데, 어디와든 제휴를 하든 해서 많이 알려주면 좋겠고. 어제자 뉴스는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알려주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국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국래 위원:

방금 전애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OBS 아나운서들의 (리포터도 그렇고) 독특한 억양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요? 다른 방송사와 확연하게 차이나는 억양이 있습니다.

전애리 위원:

네. 있어요.

김국래 위원:

어떤 때에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의도적인 것인지 궁금했구요.

어느 날은 <OBS 뉴스 M>과 <OBS 뉴스라인 인천-경기>와 내용이 똑같은 날이 있어요.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날이 있는데. 하나는 전국 뉴스고 지역 뉴스인 것이 제목에서 드러나는데요. 실제로는 지역뉴스는 하나도 없고 전국 뉴스를 그대로 다시 방송하는, 그것도 불과 한 시간 차이를 두고 똑같이 배치하는 날이 가끔 있더라구요. 어쩌다 한 번 두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날에는 많이 겹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뉴스 콘텐츠가 생성이 안 됐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자제 선거 관련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량 미달의 당선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례 하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공천한 지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모 후보가 있는데요. 공약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하는 구나'. 공보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외교 실현', '원전지역 주민 지원 강화'. 인천 모 구 기초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큰 제목만 가져다 붙인 거죠. 기초의회에 무슨 외교권이 있어서 자주외교를 실현하고, 인천에 무슨 원자력 발전단지가 있다고… 기분이 나빴죠. 이런 것을 유권자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함량미달의 후보자가 너무 많이 당선되어 우려스럽고, 지금부터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선자들 인터뷰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공약 한번 당사자들 입으로 검토하기, 공약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이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중간평가나 이후 선거가 닥칠 때 이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시청자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국장님들 짧게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택 보도국 부국장:

네, 답변은 다음 달에 드리도록 하겠구요. 오늘 전애리 위원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연 편성제작국장:

편성제작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완성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제작진과 이야기하고 있구요. 여기서 이렇게 의견 주시면 다 카피해서 PD, 작가, 제작진에게 모두 주거든요. 명심하고 다음에 반드시 개선된 모습 보여달라고 매번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더 잘 만들겠습니다.

최순영 위원장:

네. 좋은 의견 주신 것들이 꼭 수렴되어 더 좋은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차기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넷째 주가 24일이고 마지막 주가 31일입니다. 휴가철이라 혹시나 해서 다음 달은 둘 중 하루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시청자위원회는 7월 24일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 폐　회 –